

한국 VS 미국 닭고기 축제 **한국**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의 장!

본지 김효진 기자

우리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작년도 기준 9.6kg(정육기준)으로 매년 그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 2005년 쇠고기 소비량을 추월한 후 현재 1.5kg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 소비량 19.1kg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그러나 2007년 19.2kg을 기록했던 돼지고기 소비량이 2008년, 2009년 19.1kg으로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반면 닭고기 소비량은 2007년 8.6kg, 2008년 9.0kg, 2009년 9.6k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이는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적 특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다양한 조리법에 의한 맛의 변화, 월드컵 등 전 국민적 축제,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닭고기 소비 증가를 위해 우리 체육업계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화이트데이 & 구구데이, 치킨 페스티벌이다.

화이트데이(White Day · 白日)



2003년 첫 화이트데이 행사 모습

‘화이트데이’와 ‘구구데이’는 지난 2003년 ‘닭고기 소비축전’을 위해 만들어져 올해로 8번째를 맞고 있다.

이상진 전 국립축산과학원장(당시 가금과장)은 2003년 당시 기존 3월 14일 ‘White Day(白日)’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 4월 9일, 9월 9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하자는 반짝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람의 장수와 건강을 축하하는 날인 백수(白壽)는 백살(百歲)에서 한 살(一歲)을 뺀 나이로써 99살(白歲)에 잔치를 한다.

이상진 전 원장은 이 점을 착안하여 White Day, 즉 白日은 1년중 백번째 날에서 하루를 뺀 날짜로 1월 1일에서 99일째 되는 날, 즉 4

한국 VS 미국 닭고기 축제 **한국**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의 장!

월 9일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백일(白日)로써 앞으로 백일(白日)인 4월 9일을 'White Day'로 정하여 이날 만큼은 백색육(White meat)인 닭고기를 백숙(白熟)으로 먹는 날로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상진 전 원장의 제안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2003년 4월 9일 당시 대전 유성에 소재한 가금과내 벚꽃이 만개한 뒤뜰에서 가금관련 연구원들의 모임인 계연회(鷄研會) 회원들과 한국계육협회를 포함한 업계관계자, 전문지 기자 등 약 60여명이 모여 가금과 앞마당에서 자체 개발한 육용재래닭 바비큐 구이와 본회 회원사에서 제공한 닭고기 가공품을 시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행사가 지금의 '화이트데이' 행사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 후 토종 '화이트데이'에는 축산과학원과 본회를 비롯 가금단체 공동주최로 시식회를

비롯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백수(白壽)를 기원하는 의미로 2005인분의 닭 백숙(白熟)을 종묘공원을 찾은 어르신들께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서울을 비롯 전국 행사로 확대돼 전국 12개 농협지역본부에서 이날 닭고기 무료시식회, 닭고기 요리 전시 및 강습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그 후 2007년 닭고기 주 소비층인 젊은층을 겨냥해 '화이트 닭살데이'로 행사명칭을 변경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닭고기 소비 촉진 행사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출발했던 이 행사는 현재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백숙데이' 등의 이름으로 지난 4월 9일 농촌진흥청 구내 식당에서 점심메뉴로 삼계탕을 먹는 것에 그쳤다. 4월 9일 의미있는 화이트데이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이 알려지고, 소비촉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2007년 4월 9일 닭살데이 선포식을 가졌다. 다양한 닭요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2010년 4월 9일 축산과학원내 식당에서 우리맛 닭으로 만든 삼계탕을 점심메뉴로 먹는 모습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의 장!

구구데이(9·9Day)

예로부터 닭을 불러모을 때 “구구”라고 말해 온 점에서 의미를 따와 9월 9일을 “9·9Day” 닭고기 먹는 날로 정해 2003년부터 매년 9월 9일이 되면 구구데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구구데이’ 행사는 2003년도 한국계육협회가 MBC 라디오 여성시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닭고기 가족요리 경연대회’로 포문을 열었다.

구구데이를 맞아 2003년 9월 7일 서울 여의도동 소재 63빌딩에서 열렸던 ‘닭고기 가족요리 경연대회’는 MBC 라디오 여성시대와 함께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1차 심사에서 채택된 50가족이 모여 맛있는 닭고기 요리 솜씨를 뽐냈다.

이 요리대회는 일반 가정에서 즐기는 닭고기

요리법 개발과 홍보를 통해 건강식 닭고기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닭고기 소비촉진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구구데이 행사는 가금관련 단체 주최, 농협중앙회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주관으로 명동에서 닭고기 요리 시식회와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올해도 지난 9월 9일 ‘2010 대한민국 구구데이’ 행사가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닭을 키우기 위해 사용되었던 닭 어리장, 닭 지게, 닭장, 병아리장과 각종 닭 조형물 및 그림이 전시되었다. 또한 얼음을 이용한 2m 높이의 대형 닭모형 얼음 조각과 ‘추석맛이 닭고기 요리 베스트 9’ 등 다양한 닭고기가 요리가 선보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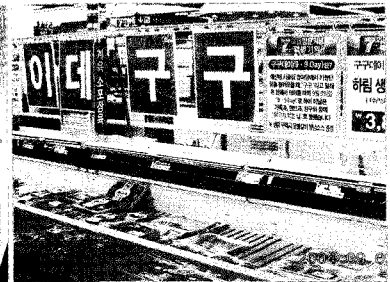
특히 미스코리아 진·선·미 세 명을 ‘구구



2003년 구구데이 기념으로 한국계육협회와 MBC 라디오 여성시대 공동으로 진행한 닭고기 가족요리 경연대회



2003년 당시 본회 한형석 회장은 대회 도중 여성시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닭고기의 효능과 우수성을 알렸다.



2004년 구구데이를 기념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닭고기 구매시 사은 행사가 진행됐다.

한국 VS 미국 닭고기 축제 **한국**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의 장!

데이'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닭고기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2010인분의 닭고기(닭 진미전 + 닭 호도볶음) 및 계란요리(계란냉채 + 계란감식초구이)와 999인분의 후라이드 치킨과 구운계란 등이 풍성하게 준비돼 시민들에게 제공됐다.

이 밖에 대고와 북을 이용한 타악 퍼포먼스, 다이어트 벨리댄스 공연, 전자 현악연주 및 아카펠라 공연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치킨 페스티벌(Chicken Festival)

올해 처음으로 치킨 페스티벌(Chicken Festival)이 열렸다.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코엑스 Hall B1(구 인도양홀)에서 'Love Chicken, Enjoy Chicken!' 이라는 주제로 17개사 56부스가 참여해 2만6천여명의 참관객을 유치, 성대하게 치러졌다.

한국계육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후원한 이 행사는 국내 계육

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국내 최초의 계육 전문 전시회로 본회 회원사와 치킨 프랜차이즈, 닭요리 전문점이 참여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2010년 구구데이 행사. 시민들이 닭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



2010년 구구데이 행사. 미스코리아들이 시민들에게 닭요리를 나눠주고 있다.



지난 5월 28일~30일 3일동안 코엑스에서 2010 치킨 페스티벌이 열렸다.



5가지의 웰빙 닭요리 시식회



특수 제작된 줄 위를 참관객이 걷는 게임인 슬랙리인



2010 치킨 페스티벌 전경

사전 이벤트로 진행된 '사연 많은 닭'에 당첨돼 배달된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

한국계육협회 홍보관에서는 닭고기 우수성 홍보를 비롯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과 안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 행사에서 본회는 홍보관을 배치해 닭고기가 우리 몸에 좋은 10가지 이유와 깨끗하고 위생적인 닭고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산 닭고기에만 붙는 안심마크인 '품질보증마크'를 소개하는 등 닭고기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밖에도 닭고기 우수성을 담은 홍보 리플렛과 포스트잇, 닭고기 요리책자를 제작해 입장하는 관람객들에게 제공했다.

닭고기 생산 전문업체들은 자사 브랜드 및 다양한 닭고기 제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번 치킨 페스티벌은 전시행사와 사전이벤트, 현장이벤트, 부대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그 중 사전 이벤트로 닭과 관련된 사연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직접 치킨

을 배달해 주는 '사연 많은 닭'이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 총 300여건 중 사연 중 20개를 선정, 치킨을 배달해 주었다.

또한 즐기는 축제답게 5월 28일과 29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참가업체와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Chicken Party'를 2회에 걸쳐 개최해 참관객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행사장 내에는 '치킨 뮤지엄'을 운영, 한국인들이 닭과 함께 한 문화를 볼 수 있어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문화공간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눈을 감고 닭을 시식한 후 닭 요리의 명칭을 맞추면 선물까지 주어지는 게임인 '눈감고도 먹는 닭', 닭에 관한 퀴즈를 하나하나 풀어 상품에 도전하는 '도전 골든 닭'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즐거움을 더했다.

치킨 페스티벌을 통해 생산액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닭고기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